

도쿄국립박물관

도쿄국립박물관은 일본에서 제일 크고 오래된 박물관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이집트를 포함한 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재를 수집·보관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아시아의 예술 문화와 역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보급 사업 등을 진행하며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꾀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부지내에는 전시관들과 자료관, 레스토랑, 뮤지엄 샵 등이 있습니다. 또, 야외전시와 정원이 있어 계절별로 색다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뮤지엄 시어터(매주 금·토·일 및 공휴일 공개) 등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조몬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시대별 전시와 조각, 도자기, 우키요에 등의 분야별 전시, 테마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정기적으로 교체되므로 늘 새로운 작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와타나베 히토시씨의 설계에 의해 1938년 개관하였고, 동양풍을 강조한 「제관양식」의대표작입니다. 2001년에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M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1878년에 나라현 호류지에서 황실에 헌납되어, 제2차 세계대전 후 국가에 이관된 7~8 세기의 호류지 헌납 보물 약 300여건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1999년 다니구치 요시오씨의 설계에 의해 개관하였고, 여섯개의 전시실에서 분야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